

# 챔피언스필드 올해도 '주차대란'

## 광주시 주차장 시설 3만㎡ 지정해 놓고 3년째 제자리

### 일부 아파트 주민 반대에 소극 대응... 오늘 공청회 주목

28일부터 본격적인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지만 올해도 광주시민들은 야구를 즐기지 못한다. '주차장 부족'이 원인이다. 특히 광주시는 또 프로야구 시즌 내내 주변 교통대란이 되풀이됐음에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에는 미온적 입장을 취하면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장 조성 반대' 움직임에만 지나치게 신경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3월 북구 임동주민센터에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연다.

야구장 주변 고질적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주차장 부지로 결정, 고

시해놓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따른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면서 비롯됐다는 게 광주시 안팎의 설명이다. 해당 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 입장이 달라지지 않아 절충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반영됐다.

예초 광주시는 지난 2012년 3월 야구장에서 직선거리로 300m 떨어진 보훈회관·한국아델리움 1차 후문·RCY(청소년 적십자) 광주전남본부·임동 119 안전센터 인근 등 4곳 부지(2만9166㎡)를 주차장 시설로 결정, 차량 1200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 야구장(2만2244㎡) 규모를 고려하면 주차 공간(1106대)이

부족한 데 따른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계획이지만 이후 예산 부족과 일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주차장 조성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다.

광주시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올 해도 야구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전쟁'은 불교피한 형편이다. 해당 토지 소유자들도 광주시가 주차장 예정지로 고시해놓고 매입하지 않으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가 시민들의 높은 야구 열기에 주차 공간 확보에 미온적 입장을 취하면서 시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시는 그러나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소음·매연 피해 ▲경기가 없을 때 주차장 시설의 우범지대와

▲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아파트 분양가 하락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해당 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 입장 등을 우려, 야구장 주변 교통 불편 해소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지난 2012년 11월 강운태 전 광주시장과의 대화에서 주민 동의 없이는 아파트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들었다"며 인근 주차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과 북구의 반대 탓에 주차장 건립 진행이 더딘 것은 사실"이라며 "공청회 결과에 따라 인근 아파트 주민이 반대하는 2곳을 제외한 부지부터 착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선배 손 꼭 잡은 신입생 레드카펫 밟으며 입학식

광주 월곡중학교(교장 이희경)는 2일 학교 월곡관에서 144명의 새 식구를 맞았다. '세상을 향한 걸음에 날개를 달자'는 주제로 열린 이날 입학식에서는 3학년 선배들이 1학년 신입생을 맞이하는 등 훈훈하게 진행됐다. 이희경 교장은 "여러분 모두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현하는 요람의 주인이며 주인공"이라며 "레드카펫은 학교폭력과 따돌림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다짐이자 첫번째 실천으로 서로 아끼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불법 주정차 단속 '눈치'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막고 접촉사고를 야기하는 불법주정차가 판을 치는 데도, 주변 상인들의 눈치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조차 설치할 수 없다. 불법 주정차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양쪽 갓길에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2~3초의 거리를 2~3분 걸려 통과할 정도로 매일 불법주정차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

하지만 각 구는 상권을 침해한다는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불법주정차 단속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상인들의 반발에 따라 떼두기처럼 자리를 깨

## 광주 곳곳 상인들 "영업 손실"반발...CCTV도 설치 못해

속 옮겨다니는 상황. 반칙 운전자들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셈이다.

북구는 지난 2005년 북구 용봉동 전남대 상대 쪽문 주변에 CCTV 한 대를 설치했다. 불법주정차가 심각하다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 그러나 이 CCTV는 3년 뒤인 지난 2008년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주은행 앞길로 옮겨졌으며 해당 상가 주민들은 J아파트 주변으로 CCTV 이설을 요구하고 있다.

물리적 안전장치 때문에 애꿎은 주민피해는 물론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소극적으로 해왔던 불법주정차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은 물론 운전자 스스로 불법주정차를 남에게 피해주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현금과 선물 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등 7명을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고흥군 선관위는 지난해 12월에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흥 지역 모 조합의 임 후보가 A씨와 그 측근 B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고흥군 선관위는 또 지난 2월 중순께 같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A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A씨의 또 다른 측근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강진군 선관위도 강진 지역 모 조합의 후보자인 D씨가 그 측근인 E씨 및 F

## 5·18 35주년 기념행사위 조직 구성 완료

### 상임위원장 김정길씨 내정 본격 행사 준비 나서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35주년 행사위)가 3일 35주년 기념행사를 이끌어갈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나섰다.

2일 35주년 행사위에 따르면 3일 광주 시 동구 금남로 광주 YMCA 2층 회의실에서 상임위원장(1명)·공동위원장(20명)·5·18 기획단장(1명)·집행위원장(1명)·사무처장(1명) 등 조직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장에 김정길 6·15 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가, 5·18 기획단장과 집행위원장에 김영정 광주진보연대 집행위원장과 안평환 광주 YM·CA 사무총장이 각각 내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동위원장단의 추대를 받은 이면 조직구성의 특징은 5·18 기념행

사를 치러본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진보연대와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조직에 고무 배치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념행사는 진보연대와 시민단체가 매년 번갈아가면서 5·18 기념행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해 왔었다.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이들 단체가 한데 힘을 모아 행사준비에 본격 나서기로 하면서 올해 기념행사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35주년 행사위는 시청 강당 등에서 치러지던 '시민의 날'(5월 21일) 행사를 옛 전남도청 앞길로 옮긴 뒤 5월의 정신과 의미를 담아 치를 수 있도록 시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또 민주기사의 날 차광시위 재현행사도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참여를 받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35주년 행사위의 사업 예산은 지난해 5억1000만 원(보충예산 포함) 수준인 5억 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조합장 선거 현금·선물 제공 7명 고발

###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현금과 선물 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등 7명을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고흥군 선관위는 지난해 12월에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흥 지역 모 조합의 임 후보가 A씨와 그 측근 B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고흥군 선관위는 또 지난 2월 중순께 같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A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A씨의 또 다른 측근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강진군 선관위도 강진 지역 모 조합의 후보자인 D씨가 그 측근인 E씨 및 F

씨와 함께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해 무선 전기포트와 수저통 430여개(총 381만원 상당)를 나눠주며 출마 안내 및 지지를 호소 한 혐의로 지난해 27일 강진경찰서에 고발했다.

곡성군 선관위도 설 명절 전인 2월 중순 경 후보자를 위해 호텔방문 하며 조합원 및 그 가족에게 배 선물상자 25개(총 76만8000원 상당)를 제공했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모 조합의 후보자의 인척인 G씨를 지난해 27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돈 선거' 관행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거가 끝나더라도 위반행위를 끝까지 추적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2015년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시행 공고

「2015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7일

### 중 소 기 업 청 장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우수 초·중급(학사 이하) 기술개발인력을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유입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능력개발비 지원을 통해 인력의 역량 향상
- 지원규모: 60억원

#### 2. 지원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하의 기술개발인력으로 연구진 담당원\* 자격을 갖춘 자
- \* 기초연구진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연구진담당원 중 마이스터고·특성화고졸, 전문학사, 학사 등 학사급 이하 인력

#### 3.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지원조건: 사업신청 기간 중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고 연구진담당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 연구진담당원 자격기준 \*

1.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10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라 함)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법 제144조제1항제2호의 기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 4. 평가방법

- 평가절차
- 1차 평가: 신청기업 및 신청인력의 적격성 검토
- 2차 평가: 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 평가원칙
- 연구개발 투자율, 기술개발인력 구성비율, 기술개발 인력유지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차): 2015년 2월 1일(월) ~ 3월 31일(화) 18시 까지
- (2차): 2015년 9월 1일(화) ~ 10월 31일(토) 18시 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경우에 신청한 것으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수 목적으로 인하여 전산인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기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6.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 시스템(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 신청 → 과제신청 →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선택 후, 온라인 내용인력 및 첨부서류 등록

#### 7. 유의사항

- 신청서류: 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
- 사업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공지 참조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 유의사항
- 제외대상인 기업 또는 인력이 지원받은 경우, 사업관리지침에 명시된 각종 이행사항 위배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7. 지원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채용인력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용인력이 동 사업으로 지원 받은 적이 있거나,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 또는 군 복무 예정이 확정된 자
- 채용인력이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대표자 등이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채용인력이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 채용인력이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8. 문의처

담당기관(담당부서)	연락처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1357(2번) 시행계획 공고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증강센터)	02-3460-9084 / 02-3460-9090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평가, 유의사항 등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기획부) / 중소기업 R&D 플랫폼	1357(2번) 신청·접수 및 시스템

※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http://www.koifa.or.kr  
 \* 이공계인력증강센터 홈페이지: http://www.ndjob.or.kr

\* 기초연구진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진 및 연구진담당원에 대한 기준)